



즉시 배포용: 2019 년 2 월 25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PELOSI 의장과 함께 붉은 깃발 총기 규제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에 서명

새 입법 심의회 100 일 이내에 주지사의 2019 년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인 붉은 깃발 총기 규제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에 서명하겠다는 공약 완수

해당 법안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의 총기 구입 또는 소유를 금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Nancy Pelosi 의장과 함께 새 입법 심의회 100 일 이내에 2019 정의 어젠다(Justice Agenda)의 중점 의제인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 법안(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bill)이라고도 알려진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은 자신에게나 타인에게나 위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뉴욕의 총기 규제법을 토대로 한 본 법안으로 뉴욕주는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하는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교직원들의 자율권을 허용하는 미국 최초의 주가 될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더 많은 사람을 총기 사고로 잃었습니다. Trump 행정부 첫 해에 40,000 명의 시민을 총기 사고로 잃었습니다. 이는 지난 50 년간 최고 수치입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기틀을 다졌지만, 이러한 대학살을 끝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뉴욕주는 교사들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최초의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을 통과시키게 되어 자랑스롭습니다. 뉴욕주는 대통령께서 바라는 바대로 교사를 총기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힘을 실어 줌으로써, 교사나 가족은 문제가 발생했음을 인지했을 시 판사에게 청원하여 법원 명령을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은 생명을 구하고 그 누구의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입니다.”

Nancy Pelosi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가 획기적인 총기 사고 방지 법안을 제정하여 역사를 새로 쓰면서, Cuomo 주지사님과 총기 사고 생존자 및 해당 법안 지지자들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법안은 대담하고

광범위합니다. 이는 생명을 구하고 미국이 겪는 무의미한 총기 폭력의 위기에 종지부를 찍을 강력한 종합 대책을 포함합니다. 뉴욕주 및 미 하원 지도자들은 학교, 교회, 거리 또는 어느 장소에서든 더 이상 어떤 가정도 가슴 아픈 총기 사고의 비극을 겪지 않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난 여름 **Cuomo** 주지사님과 뉴욕주 전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을 홍보하였습니다.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에 서명하여 총기 사고에 대항하고, 총기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주정부의 노력에 계속해서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연방 정부는 미국 시민을 보호하지 못했으나, 뉴욕주는 지역사회에서 무의미한 총기 사고 발생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법안을 제정하여 국가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 또는 가정 내 범죄로 기소되지 않을 경우, 폭력 행위처럼 위협성을 내보이거나,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가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총기류를 한시적으로 압류하기 위해 법원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현재 뉴욕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의 개입을 통해 학교 총격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교사와 교직원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주는 미국에 없습니다.

붉은 깃발 법안(**Red Flag Bill**)은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장하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총기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필요한 모든 절차상의 안전 장치로 기능할 것입니다. 이 총기 난사 사건의 경우, 총기 난사범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위험한 인물이었지만 치명적인 총기류를 구입하고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복수의 출처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분석에 따르면 총기 난사 사건의 모든 가해자 중 절반 이상이 총격을 가하기 전에 경고 신호를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은 셀 수 없이 많이 발생했던 불필요한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총기 난사 사건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현재 미국은 전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총기 살인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장 최근 한 해 동안 발생한 총기 사망자 수는 지난 **50** 년간 최고 수준에 이릅니다.

Cuomo 주지사는 지난해 6 월 붉은 깃발 총기 규제 법안(**Red Flag Gun Protection Bill**)을 통과시키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 캠페인](#)을 발족하여 위험 징후가 있는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안을 미리 개정했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이 법안과 기타 상식적인 총기 개혁 법을 지지하는 학생, 교사, 교직원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뉴욕주 전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는 일련의 버스 여행이 포함되었습니다.

Cuomo 주지사의 리더십 하에, 뉴욕주는 유죄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 및 위험한 정신 질환자의 총기를 압류하고, 개인용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보장하며, 대용량 탄창

금지 및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고, 불법적인 총기 사용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탄약 및 총기 단속법 일명 세이프법(Secure Ammunition and Firearms Enforcement Act, SAFE Act)을 포함하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는 또한 가정 폭력과 치명적인 총기 폭력 사이의 연결성을 제거하는 법률을 최근에 제정했습니다.

Andrea Stewart-Cousins 뉴욕주 상원 다수당 원내 총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역사회와 학교, 그리고 모든 뉴욕 주민을 총기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난 수 년간의 상식적인 총기 규제 법안 부재 이후, 뉴욕주 상원은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 ERPO)을 포함한 주요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이 상식에 부합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뉴욕주는 현명한 총기 규제 법안으로 국가적 모범이 되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 **Carl Heastie** 하원 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비극 이후 우리의 속고와 기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원 다수당은 상식적인 총기 폭력을 방지할 총기 규제법 개혁안을 위해 투쟁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원 동료 의원들과 협업하여 마침내 이번 규제법과 기타 개혁안을 제정할 수 있게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총기 폭력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현명한 법안을 마련하고, 뉴욕주를 모든 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Brian Kavanagh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원에서 극한의 위험 보호 명령(Extreme Risk Protection Order)을 지지해 온 저는, 최근 상원의원으로서 ERPO 법안을 뉴욕주 법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총기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뉴욕주에서 발생하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커다란 도약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 현명한 정책 마련,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입 전략으로 뉴욕주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drea-Stewart Cousins 상원 대표, Carl Heastie 의장, 본 법안을 발의해 주신 JoAnne Simon 하원의원, 그리고 오늘의 성취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모든 지지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법안에 서명해 주신 Andrew Cuomo 주지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Jo Anne Simon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가까운 이들이 스스로나 다른 이를 위험해 처하게 할 수 있음을 알리는 위험 징후를 목도합니다. 그러나 대인 살상 무기로 발생하는 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을 메커니즘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법안은 가족, 사법집행기관 및 교직원에게 총기 난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합니다.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매일 총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이러한 상황에서, 비극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총기 규제법에 대한 공약을 지켜 주신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